



도서관은 국가와 문화의 발전을 위한 혁신의 요람이다.

1974년 7월 8일, 당시 문교부는 서울 남산에 있는 어린이회관을 사들여 국립중앙도서관으로 쓰겠다고 발표했다고 한다. 1973년 10월 22일 지금의 롯데호텔 자리에 있던 국립중앙도서관을 호텔롯데측에 8억 3,650만원에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여의도에 대지 5천평 건평 6천평 규모의 새 도서관 건물을 신축해서 이전하고자 했으나, 유류 파동 이후 건축자재값이 오르게 되어 신축이 불가능하다고 결정하고, 당초 계획한 도서관 규모에 가까운 어린이회관을 양도받아 이전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도협월보》 1974년 2월호에 이미 국립중앙도서관의 위치설정에 대한 논의가 실린 바 있고, 국회측에서 국회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을 통합해 여의도에 새 건물을 짓자는 의견도 있었다고 하나, 결국은 어린이회관으로 옮겨 정착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이에 대해 《도서관》 7월호에 글을 게재한 임희섭 고려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을 시민의 발이 닿기 어려운 남산중턱의 어린이회관 자리였다 정하고 그것도 도서관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어지지 않은 건물을 도서관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도서관을 수험준비생들의 독서실 정도로 착각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게 하는 것도 무리가 아닌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이 30년 전 이러한 결정이 과연 우리 도서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지금은 국립중앙도서관이 남산을 떠나 서초동에 자리잡고 공부방 기능을 없애 명실상부하게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도서관 입지조건이나 기능수행 방식이 30년 전과 별로

다르지 않는 도서관이 있지는 않은 지 살펴볼 일이다.

《도서관》 7월호 권두언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김운태 교수가 썼다. “도서관은 국가와 문화의 발전을 위한 혁신의 요람이다. 혁신이라 「창조」이며(E. Hagen과 R. Lapiere) 「새로운 아이디어의 착상과 실천이다.」(V.A. Thompson) 혁신이란 말을 이렇게 파악할 때 많은 경우 혁신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은 도서관에서 발원한다고 할 수 있다. 도서관은 국가발전과 문화발전에 관한 창조적인 새로운 아이디어를 잉태하기에 가장 기름진 토양이며 근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가발전과 문화발전을 기하려면 먼저 문화정책 및 문화행정의 일환으로서 도서관을 육성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발전도상에 있는 우리나라와 같은 곳에서는 무엇보다도 그러한 것이 절실히 요청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에 없던 새로운 상태로 국가와 사회 및 문화적 발전을 기하려면 새로운 창조와 아이디어를 착상하고 배양하며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하면서 가장 긴급한 사안 두 가지를 지적하였다.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과 능력과 자격을 갖춘 훌륭한 인재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도서관》은 이달 특집으로 ‘도서관과 사회’를 주제로 하여 3편의 글을 실고 있다. 사실 이러한 탐구는 매우 중요하고 도서관과 같은 사회적 기관은 늘 이러한 탐색을 통해 자신의 사회적 관계성을 확인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자신의 역할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도협월보》 7월호에는 ‘문화원 도서관의 존립


의의 ; 공공도서관과 문화원의 관계를 밝히면서 라는 글이 게재되었다. 한국문화원연합회 허찬중 사무국장이 기고한 글로, 6월호에 실린 장일세씨의 “공공도서관 설치현황과 문제점”이라는 글 중 ‘문화원에 대한 고찰’의 일부 내용에 대해 문화원 측에서 일종의 반론을 제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미 당시에 문화원이 공공도서관을 위탁운영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이해에 혼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에 공공도서관과 문화원 도서관과의 관계는 매우 복잡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문화원연합회의 문제제기에 대해 필자와 협회는 “참뜻은 공공도서관과 더불어 문화원이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문화기관으로서 훌륭한 기능을 가져올 것을 염원하는 충정에서 고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금에 와서 이 문제의 전말을 따질 이유는 없을 것이나, 허찬중 사무국장의 글 중 의미있는 구절이 있어 되새겨 본다. “문화원이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은 단지 향토문화 계발사업을 지표로 하는 마당에서 우리 사회에 도서관이 발달하여 문화원에 의한 노력이 필요 없게 될 때에는 문화원 도서관은 장서를 도서관에 옮겨줄 것이며 굳이 억지 병립을 바랄 성격의 것도 아닌 것이다. 말하자면 문화원 도서관의 병립의의는 도서관이 없거나 미약한 향토에 도서관을 유치하고 발전시키는데 있어 선구자적 역할을 다하는 것을 만족하는 스스로의 한계를 원시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30년의 세월이 흘러 공공도서관의 체계도 어느 정도 확립되었기에 이제는 보다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각 지역에서 도서관 체계를 면밀하게 분석해서 도서관 자원과 역량을 최대한 결집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재구성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도서관 이용을 통해 삶의 만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0년 전 논란을 다시금 살펴보면
서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서 도서관계가 좀 더 개
방적이고 적극적인 인식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
실을 거듭 확인하게 된다.

한국도서관학연구회 정기총회가 7월 20일 국립
중앙도서관 구내식당에서 있었다. 이날 회의는 통
상적인 총회로 회칙개정안 처리와 임원선출이 있
었다고 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이 매년 하계휴가 기
간을 이용해서 실시해 온 임해문고(7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일정으로 강릉경포대에 설치할 예
정이었다)가 이번에는 이전문제로 개설하지 않거
로 했다고 하는 소식이 있다. 방학기간이라 학교
도서관 활동은 여럿 있었다. 우선 학교도서관 발
전을 위한 교장세미나가 한국도서관협회 전남지구
협의회 주최로 7월 25일 전남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서 있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광주지구 초·중·고
등학교 교장과 도내 학교도서관 현구학교 교장 및
주임교사 등 약 150명이 참가하였다고 한다. 발표
된 주제는 '현대교육과 학교도서관'(김세익 이대
교수), '학교도서관의 조직과 관리'(김평훈 광주교
대 교수), '학교도서관의 자료와 운용'(조선대 김기
상 교수), '우리의 정체성과 고전'(홍순탁 전남대
교수) 등이었다. 또한 7월 9일부터 8월 30일까지는
충청남도교육위원회 주관으로 공주사대에서 사서
교사강습이 있었다고 한다. 이 강습은 하기방학을
이용해서 도내 중고등학교 도서관담당자들에게
학교도서관이 당면한 침체를 벗어나 도서관 운영
을 정상화시키는 동시에 활력있는 활동을 촉진하
고 사서교사의 자질을 훈련하기 위하여 실시했
다고 한다. 모두 91명이 참석하였으며, 50여일 간
총 240시간의 과정을 이수하였다. 도서분류(46),
도서목록(30), 참고업무(35), 서지(20), 인쇄발

달(20), 시청각자료(17), 기타교양과목(72)이 있
었다. 광주 전일도서관에서는 하계 봉사활동의 일
환으로 7월 27일부터 30일까지 전남 화순군 이양
북국민학교에 이동도서관을 개설했다. 이 도서관
은 '벽지주민들에게 독서 의욕을 고취시키는 한편
영화상영 및 독후감쓰기 백일장 대회 등을 개최하
여 소기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고 한다. 개관 중
에 1,586명이 도서관을 이용했다고 한다. 최근에
들어 다시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 연계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당시 도서관 활동의 정겨
운(?)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신선하다.

여름에 들어서는 7월인지라, 30년 전에도 7월에는
별다른 소식이 없었다. 아무래도 휴가기간이 겹
쳐 있어 활동이 주춤한 때문이리라. 그래서 이번
호 글도 역시 짧아졌다. 아무튼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었다. 한 여름 무더위를 피하는 일이 급하다
하더라도 역사는 항상 꿈꾸는 자의 몫이라고 했으
니 지난 역사를 되짚고 앞날을 꿈꾸는 일에는 더욱
맘을 흘렸으면 하는 바람이다.  [글 : 이용훈 협회
기획부장, blackmt@hitel.net]